



# 發明教室

이렇게해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第18回 發明教室 盛了

8月 10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8月 10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8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
- ...은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議應答...○
- ...을 통하여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一和...○
- ...엔지니어링(株) 李德浩사장과 三星電子(株) 張學男주임연구원의 成功事例 發...○
- ...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三顛四起的 發明企業人

— 一和엔지니어링(株) 李德浩 사장 —



〈李德浩사장〉

發明人 李德浩씨(一和엔지니어링(株) 代表)의 의욕에 넘친 첫마디.

『아직 事業에는 成功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식당 및 대중음식점의 위생시설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를 發明하여 3차례의 사업실패 끝에 비로소 成功을 눈앞에 둔 發

李씨가 자외선살균소독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7年前, 상업·건축업·상품포장업등 하는 사업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였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실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연속된 실패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외선살균소독기 開發에 매달렸다.

그러나 李씨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자신의 마지막 사업으로까지 생각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천 대대로 의료업에 종사, 그의 몸에는 병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해야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잠재해 있었고 그는 뒤늦게나마 「예방」쪽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國內외의 관련 서적을 뒤져 각종 情報를 수집하며 研究에 몰두했으나 이것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先進國에서 실용화된 「식품 및 의약품을 포장하는 무균실」·양제장·양돈장·우사등에서 사용하는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생각해냈고 이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문제점인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자의선에 의한 각막염발생등)을 개선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

李씨의 이같은 생각은 적중했다. 그러나李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과학적이고 안전한 살균력이 뛰어난 제품개발에 몰두하여 이 研究에 매달린지 3年만에 實用新案 및 意匠을 出願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10月 드디어 두 분야 모두 登錄을 마쳤으며 또 다른 特許도 出願했다.

李씨는 3차례의 사업실패에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이때는 참을 수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시작품이 선을 보인것은 지난해 3月. 시작품 生産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병원균사멸 분석 및 보건사회부 병원균사멸을 분석결과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어 지난 4月에는 一和 엔지니어링(株)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판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현대기업은 아이디어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읍니다』.

發明으로 3번의 사업실패를 딛고 일어난李씨는 앞으로 계속 發明에 전력을 다하여 世界最高의 자의선살균소독기를 개발하겠다고 환히 웃었다.

## 日本을 이긴 職務發明人

三星電子(株) 張學男 주임연구원



『日本을 이겨야 世界를 制霸한다.』는 一念으로 젊음을 불태워 끝내 日本을 이긴 執念의 職務發明人이 있다.

三星電子(株) 음향스테레오설계실 주임연구원 張學男(35)씨는 무슨 일이든 한번

〈張學男주임〉 매달리면 끝장을 보고 마는 불도저같은 사나이이다.

研究에 몰두하면 점심도 퇴근도 잊고 매달린다는 張씨는 지난 5月 本會가 주관한 第20回 發明의 날에 優秀發明者로 뽑혀 商工部長官 表彰을 받은 장본인.

이번 수상은 현재 오디오 제품이 추구하고 있는 저가격, 다기능, 소형화의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張씨는 「스테레오의 꽃」으로 불리는 뮤직센터의 슬립화와 데크·튜너·앰프·이쿠얼라이저등을 원-사시로 처리, 콤포넌트의 일체화 및 소형화를 가능케하여 日本 및 先進國의 독무대였던 세계음향제품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했으며 南美 및 브라질등에 技術을 提供하여 技術開發力을 國內外에 과시하기도 했다.

張씨는 또 고속녹음, 장시간 플레이 및 더빙기능의 오디오를 開發해 원가절감 및 공수절감 그리고 제품의 고급화에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이렇게하여 張씨가 77年 三星電子(株)에 入社 이후 지금까지 特許廳에 出願한 技術은 모두 34件. 이중 7件은 이미 登錄되어 製品화된지 오래다.

張씨는 社內에서는 보물로 통한다. 81年과 82年 연속 社內에서 주최한 發明賞을 수상했으며, 84年 업무 매뉴얼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오디오분야의 特許관리업무를 맡고있어 特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탁월하다.

張씨는 기술축적과 기술의 상품화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평소 研究에 임한다고 한다.

『제품의 기술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요.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研究에 임하다보니 항상 개선의 아이디어가 나오더군요.』

張씨는 研究者에게 자만은 금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기간에 34件의 技術을 開發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研究에 임한데 있었다고 말했다. (\*)